

“일몰제 대비 충분했는데...광주시 뭐했나”

광주 3대공원 '민간공원 개발 토론회' 가보니

참석자들 성토 속 “국가공원 지정은 현실적 대안” 공원 최대한 지키고 개발하더라도 공공성 확보를

28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 3대 공원(중앙·중외·일곡) 관련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광주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 도대체 뭐했나”라며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도시공원 일몰제(공원구역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현재결정이 지난 2009년 내려져 준비기간이 충분했는데도 민선 2기부터 민선 6기까지의 역대 광주시정들이 폭탄 넘기듯이 떠날것이다 비판도 터져나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환경운동가, 대학 교수, 광주시 관계자,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 80여명이 공청회가 시작되는 오후 2시 이전부터 몰려들었다.

토론회 시작 전 참가자들은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모여 놀라는 눈치였다. 토론회가 시작하자 참가자들은 발언을 이어갔다.

첫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조진상 동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그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국가 도시공원 지정 방안’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공원의 특색을 소개한 뒤 “공원을 최대한으로 지키고 개발하더라도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상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참석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고 한 환경운동가는 “조진상 교수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아주 현실적인 방안이다”며 평가했다.

이어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 광주 3대 공원을 민간공원개발로부터 지켜내자’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도시에는 다른 공원을 포

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3대 공원은 지켜야 한다”며 “광주시가 종합적인 상황에서 보 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홍인화 중외공원 사랑하는 사람들은 “중외공원은 5·18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전국에서 성금을 모아 조성된 곳이며, 광주 정신과 연결됐다”며 “시민들이 이용하는 소통의 공간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 중 일부는 “광주시가 건설업체 중심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업 공고 자체를

■ 광주 3대 공원 개요

공원	위치	면적(㎡)	집행(㎡)	미집행(㎡)
중앙근린공원	서구 풍암동 467	2,939,337	656,689	2,282,648
중외근린공원	북구 운암동 산42-3	2,439,131	794,951	1,644,180
일곡근린공원	북구 일곡동 산165	1,066,166	109,332	956,834
합계		6,444,634	1,560,972	4,883,662

■ 광주 3대 공원 토지보상비

공원	미집행 공원면적(㎡)	총사업비(백만원)	지장물비(백만원)	토지매입비(백만원)
중앙근린공원	2,282,648	658.746	189.319	469.427
중외근린공원	1,644,180	258.191	136.366	121.825
일곡근린공원	956,834	128.160	79.358	48.802
합계	4,883,662	1,045.097	405.043	640.054

전면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문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진 광주시 공원녹지와 계장은 “행정 절차 등의 문제가 있어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며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운장현 광주시장은 공원녹지와 뒤에 숨겨져 있고 앞으로 나와 시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28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광주 3대공원(중앙·중외·일곡) 민간공원 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에 국가 배상하라”

21명에 위자료 16억 지급 판결

한국전쟁 전후 여수, 담양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 21명의 유족과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위자료 16억3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를 근거로 21명 중 19명을 희생자로 판단했다. 한국전쟁 전후인 1948~1952년 여수, 담양 등에서 빨치산 토벌 등의 명분으로 군경에 의해 사살되거나 불법 연행되고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29명의 유족은 2013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38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심 재판부는 29명 중 18명을 희생자로 판단,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며 유족에게 위자료 15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명을 추가 희생자로 인정하고 19명의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취업 알선 사기 4억원 채긴 전직 경제전문지 기자 구속

경제전문지 기자 신분을 내세워 지인들에게 수억원대 취업사기를 벌인 전직 기자가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녀의 대기업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경제전문지 기자 A(48)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알고 지내던 B(여·60)씨에게 “아들을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 정규직으로 특별채용시켜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7000여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피해자 8명에게 4억1000만원을 받아 채긴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5000만원을 수표로 받은 뒤 “회식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두차례 150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전남에서 활동한 A씨는 기자 신분과 여수 소재 대기업 직인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대기업 누리집에서 회사 로고를 내려받고 회사 직인과 사인을 위조해 ‘최종면접 통지서’ 등 채용 관련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취업이 곧 확정될 것처럼 안심시키는 등 범행을 장기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 신분을 이용해 2년여간 사기 행각을 벌이던 A씨는 지난달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회사로부터 해고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두환 회고록 출판 금지 소장 접수

5월단체·조비오 신부 유족 손배 청구도

광주지법에 제출

5·18민주유공자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올 4월 전 전 대통령이 펴낸 회고록에 5·18 관련 왜곡사실이 광범위하게 담겨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만큼 그에 따른 금전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회고록에서 5·18 관련 왜곡사실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소송도 제기했다.

28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과 5·18민주유공자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전 전 대통령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에 이은 본안 소송이다.

5월 단체와 조영대 신부는 지난 12일

광주지법에 전두환 회고록 1권 ‘흔돈의 시대’ 가운데 5·18관련 왜곡사실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회고록을 통한 5·18 역사 왜곡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으며 5·18재단과 5월 단체는 각각 4000만원씩, 조영대 신부는 5000만원 등 총 2억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앞서 제기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5·18단체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관할 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옮겨달라’는 이송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송신청서에서 “광주는 5·18에 대한 지역 정서가 매우 강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지역적 연구가 적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좌회전 차량 피하러다 시외버스 상가 들진

28일 오전 8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삼거리에서 시외버스 한 대와 소형 승용차가 부딪던 뒤 인도를 넘어 인근 상가 1층 식당으로 들진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임모(여·43)씨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명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

다. 식당 유리창과 벽 일부가 파손됐지만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버스가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피하러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닌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염물질 공기 섞어 배출 등 여수산단·목포권 11곳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여수국가산단과 목포권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점검해 업체 11곳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분야별 위반사항은 대기오염물질 10건, 화학물질·폐기물 3건 등이다. 대기오염물질에 신선한 바깥 공기를 섞어서

배출한 업체,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환경청은 5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과 행정처분 대상 업체는 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무안 남압과 광양 중마동 등 신도시 주변에서 주민에게 해가 되는 환경오염요인을 미리 차단했다”고 단속 효과를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매칠전 마신 술값 너무 많이 나왔다”며 술집 찾아가 행패



○...“매칠 전에 지불했던 술값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왔다”며 술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20대가 경찰서행.

○2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문모(27)씨는 이날 새벽 3시에 광주시 북구 우산동의 한 술집에서 매칠 전에 먹었던 술값이 많이 나왔으며 CCTV확인을 요구하고 술집 종업원 김모(여·22)에

게 욕설을 퍼붓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경찰은 “CCTV 녹화화면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종업원 김씨가 ‘가게에 설치돼있는 CCTV는 녹화가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화가 난 문씨가 30분 동안 김씨에게 욕설을 하며 가게에 있는 난로를 발로 차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고 설명.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 17억

치평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법원 경매/공매】

토지	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곡성군 고달면 두거리 임야 도로접 곡성기차길 인접 토지 11,970평 감정가 44,000,000 최저가 44,000,000 곡성군 고달면 두거리 산234 토지 11,970평 감정가 44,000,000 최저가 44,000,000 나주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구 토지 10399평 감정가 2,678,000,000 최저가 2,678,000,000 북구 삼각동 농지 도시계획시설도로 접 토지 210 감정가 295,000,000 최저가 295,000,000 고흥 풍양면 매곡리 바닷가인근 도로접 학교부지 토지 1006평 감정가 58,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성 서삼면 송현리 내연마을인근 계획관리 자연취락지구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526,000,000 북구 지아동 지산초등학교인근 토지 678 건물 222평 감정가 1,057,000,000 최저가 1,057,000,000
근린시설	일반물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 쌍촌동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사무실 8m도로접 토지 168평 건물 86평 감정가 493,000,000 최저가 493,000,000 남구 송화동 광주대 인근 토지 138평 건물 492평 감정가 1,227,000,000 최저가 1,227,000,000 광산구 수완동 자연녹지 자연취락지구 토지 136평 건물 30평 감정가 239,000,000 최저가 239,000,000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인근 토지 128평 건물 251평 감정가 885,000,000 최저가 619,000,000 화순 도곡면 천암리 호별 토지 978평 건물 1295평 감정가 3,787,000,000 최저가 993,000,000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3493평 건물 1734평 감정가 49억 최저가 14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구 신안동 주삼복합상가 1층 전년대 정문앞 평수 32평 매매가 3억5천 (용지2억5천 보증금5천 월143만) 북구 운암동 운암동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19층 건물 29평 매매가 63,000,000 담양군 담양읍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 현재 상업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공장부지 대지 377평 타입중가는 매매가 17억 서구 마북동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서구 마북동 차고지 대지 300평 건물 20평 매매가 10억 광산구 비야동 아파트자리 토지 약 2000평 매매가 평당 280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